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오늘 제1독서 말씀은 탈출기 32장 소위 황금송아지 경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두려움에 찬 백성은 모세에게 중개역할을 요청, 모세 혼자 산봉우리에 올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돌로 된 계명판을 받습니다.(탈출 19,1,6;20,19;19,20;31,18 참조) 이러는 사이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나이계약 사건처럼 이 역시 의인화하여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진노하신 하느님은 모세에게 ‘네가 데리고 올라 온 너의 백성이 타락...참으로 목이 뻗었던 백성’이니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당신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기도 전에 자기 방식대로 하느님을 규정하고 섬기려는 즉, 주님이신 하느님의 길을 가는 종으로서의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느님을 종으로-복을 내리는 수단으로-삼으려는 이스라엘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경고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백성은 하느님 당신의 백성이며 그 원천인 주님 약속의 진중함을 지켜세우면서, 과거 그 약속의 파트너들-아브라함 이사악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사 간청하고, 이에 주님은 당신 자비와 당신 약속의 파트너를 향한 믿음(믿어 줌)으로 그 마음을 돌립니다.

복음 말씀은 루카 15장 되찾은 양, 은전 그리고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느님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며,(루카 13,22-23 참조) 구원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대상은 인간 곧 죄인입니다.

이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 들고 예수는 이들을 환대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천국은 이미 자신들만의 소유라 확신하기에, 이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느님의 입장에서-OO을 잃어버린 주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전하면서, 닫힌 마음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죄인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자고 청합니다.

제2독서 말씀은 사도 바오로의 고백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모두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된 자신은(1티모 1,1 참조) 소위 거룩한 믿음의 본보기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본보기로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사도 직무까지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의 열쇠말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살아보면 또 이보다 쉬운 것도 없습니다!



이승홍 이시도르 신부 | 고성 가르멜 수녀원

주일 진례

입 당 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본 기 도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제 1 독 서 탈출 32,7-11,13-14

화 답 송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제 2 독 서 1티모 1,12-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루카 15,1-32

영성체 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하느님의 어린양 4. 죽으신 피, 살리신 피

(마크 쿤의 미술작품인) 자아(Self)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상징, 몸 밖으로 나오면 죽음의 상징인 피를 재료로 자신의 자화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인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위한 것이다. 사실 혈액은 특정한 개인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몸의 일부다. 피는 DNA 정보를 비롯한 몸의 상태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혈액 검사만으로 질병의 유무와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자아는 겉모습을 재현해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겉과 속 모두 쿤 자체인 진정한 자화상이다. (이문정, 혐오와 매혹 사이)

세상은 어린양이신 분의 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분이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심으로(마태 26,28)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기(로마 5,9)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고(1베드 1,18-19), 그런 새 백성다운 삶의 결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구원을 입게 됩니다.

어린양께서는 당신의 피를 뿌려 ‘죽음’을 취하셨고, 당신의 전부를 담은 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건네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죽음으로 흘리신 피에 ‘의존’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쫓피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콜로 1,19-20 공동번역)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사목국에서는 10월 특별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사연을 공모합니다. 기쁨과 온유함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성덕의 모범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명단은 10월 교구보를 통해 안내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선정된 사연은 2020년도 사순시기 묵상집에 실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내용 : 신실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분 량 : A4 1장 이내(글씨크기 12포인트 기준)

접수마감 : 9월 27일(금)

접수방법 : 1. 이메일: samok2@cathms.or.kr(제목: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2. 우편: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봉투 겉면 표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금기禁忌 식품

이스라엘 율법엔 먹으면 죄가 되는 음식이 있다. 부정한 동물로 만든 음식이다.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을 먹는 것이다(레위기 11,3) 한쪽만 해당되어도 부정한 짐승이 된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해야 먹을 수 있고 번제에 쓰일 수 있다. 소와 양이 가장 적합한 동물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규정을 지켰고 민중을 가르쳤다. 예수님 시대 바리사이들은 이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다.

구약의 히브리인은 대부분 유목민이다. 육식이 자연스럽고 고기는 소중한 영양원이었다. 그런데도 소나 양 같은 초식동물만 먹게 했다. 이유는 이들이 온순해서 사람과 먹이 경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지어 살기에 관리도 쉬웠고 종교적

성향에도 어울렸다. 자연스레 제물용 동물이 될 수 있었다. 물고기도 제한을 받았다.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했다(레위기 11,12)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不淨한 것이 되어 먹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장어와 새우는 금기 식품이었고 어떤 종류의 조개도 먹을 수 없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등 푸른 생선도 비늘이 없기에 금지된 식자재였다. 새의 경우는 육식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는 부정했다. 비둘기와 닭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돼지는 새김질하지 않기에 부정한 동물이다. 율법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소나 양처럼 젖을 제공하지 않는다. 쟁기를 끌지도 않고 가죽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같은 식품을 먹고 척박한 가난한 땅에선 사육도 쉽지 않다. 돼지가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배경이다. 율법학자 엘야자

르는 돼지고기를 먹기보다 죽음을 선택한다.(2마카 6,19) 그의 죽음이 찬양받는 만큼 돼지는 천시되었고 돼지 치는 사람은 멸시받았다.

일반적으로 저급종교일수록 금기 식품이 많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먹으면 선善이 되는 음식은 없다. 마찬가지로 먹으면 악惡이 되는 음식도 없다. 음식은 삶의 도구일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너희는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5) 유대인은 지금도 금기 식품 전통을 따르고 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 부르며 전문매장을 차려놓고 관리한다. 코셔(Kosher)는 적합하다는 히브리말이다. 율법에 적합한 안전식품이라는 의미다.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셈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

영화 '김복동'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92년부터 올해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했던 27년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를 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강제노역으로 끌려간 수많은 피해 할아버지들의 한 많은 삶과 함께 여러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이들은 남보다 죄가 많아서 아니면 운이 없어 끌려간 것인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한일협정, 그리고 한일위안부피해자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한 국가는 존재했는가. 국가와 민족은 무엇이며 깨어있는 국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평화는 무엇이며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등.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어록을 다시 되뇌어본다. "희망을 잡고 살자.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우리가 위로금 받으려고 이때까지 싸웠나? 위로금이라고 천억 원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미안하다, 용서해 주시오' 하면 우리들도 용서할 수가 있다" "내 힘닿는 데까지 끝까지 싸우다 갈 거야". 할머니는 생전 말씀대로 끝까지 싸우다 가셨다. 용서할 준비가 됐다는 할머니들에게 '절대 사과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이제 그 사과를 들을 수 있는 할머니가 겨우 스무 명 생존해 있다는 사

실이 먹먹하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2천만 아시아인, 10만이 넘는 조선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유린당하고, 800만에 달하는 조선의 강제노역 노동자들이 타지에서 노예처럼 살다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 어디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역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은 없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나치 전범자들에게 대한 처벌과 함께 유럽 각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지속적인 배상을 통해 유럽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과는 달리 일본은 '없던 일'이라며 사과를 커녕 오히려 신군국주의로 뽕뽕 무장하고 있으니 강대국의 틈새에 낀 우리나라는 어쩌면 좋을꼬.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성모승천대축일 담화를 통해 언어와 나라, 심지어 관습마저 빼앗겼던 지난 35년간의 어둠 속을 걸었던 한민족에게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 제재는 새로운 폭력이며, 이는 과거에 저지른 불의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외면한 처사라 하였다. 진행형인 일제 강제노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해 본다.

청년성서모임 에파타: 44차 탈출기 연수

마산교구 청년 성서사도직 에파타(청년성서모임)는 하느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며,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눔을 통해 말씀의 생활화, 삶의 복음화를 실천하며, 이를 통하여 많은 청년을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의 봉사자가 되도록 이끕니다. 청년성서모임은 청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거나 기회가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https://mybible.tistory.com>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共有하며 공생共生한 하느님 소유의 44차 연수 공동체

연수 봉사자

용잠성당

김세영 소화데레사

‘탈출기 연수는 아껴두었다가 삶의 광야가 격하게 느껴질 때 가는 거다’라는 성서 가족들 사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4차 탈출기 연수에 모인 청년들은 각자의 광야를 겪으며 묵히고 아껴둔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했을까요?

우리 삶에 숨어있는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니 대체 하느님은 계시긴 한가요? 계신다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하느님을 모르는 게 나을 뻔했어요!’ 하고 불평하며 하느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광야에서 단련시키신다는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더 화가 나는 말 같았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광야를 서로 각자의 방식으로 겪고 있었던 것을 연수 기간 공유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외롭고 무서웠는데 각자의 광야를 걷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함께 있음에 광야를 걸어갈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서로가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내 주변에서 그냥 당연한 듯 있는 사람과 환경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유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계약을 주셨습니다. 계약은 가나안에 도착하면 “시작!” 하고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광야를 걷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 주신 계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늘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마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탈출기 연수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가나안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한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 광야를 덜 외롭고, 덜 두려워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또한 압니다.

이번 연수는 직장인을 위한 연수여서 기간은 3박 4일이었지만, 연수가 당일치기로 교구청에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2박 3일은 다가오는 주에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과 개인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바쁜 와중에도 그룹봉사자에게 1대 1교육을 받으며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1달 정도의 시간 동안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서 탈출기 사전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룹봉사자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받고 이번 탈출기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명의 봉사자와 11명의 연수생이 소수 인원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모여서 화합을 이루었던 44차 탈출기 연수였던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연수생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서 다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 참가자
사파성당
권지수 스테파니아

조원들끼리 나눔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봉사자님들께서 편안한 분위기로 나눔을 이끌어주시니 편하게 평소의 제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눔을 하면서 다른 조원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출기에 관련된 다양한 묵상과 체험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힘겹게 사는 이스라엘인들의 고통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없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연수에 집중하여 내 자신도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연수 안에서의 프로그램 내용과 일정 등은 이 글에서 자세히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듯합니다. 성서연수를 아직 다녀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다녀오셔서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광야인가? 아직 이집트에 있는 걸까?”

그동안 저는 제가 광야에 있다고 여겼었는데, 연수 기간 동안 아직 이집트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서, 광야로 나가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여러 의심으로 인해서 그저 망설이고만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참가자
상남성당
박성민 요한바오로

이번 탈출기 연수에서 저는 이미 제 곁에 와 있는 모세와 만날 수 있었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삶의 광야에서 제 믿음이 다시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이번 연수에서 모두와 함께한 약속을 떠올리겠습니다.

신부님과 봉사자들, 함께한 연수생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교구/본당**

주보 편집위원 회의

일사: 9월 17일(화) 12:00
장소: 교구청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사: 9월 19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무처 055·249·7016

30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사: 9월 20일(금)~22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10·9113·7062, 010·8864·7067

23기 성요셉아버지학교

일사: 9월 21일(토)~22일(주일)
장소: 수정트라피스트 수녀원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하반기 초등부 교리교사 연수

일사: 9월 22일(주일)
장소: 교구청
문의: 청소년국 055·249·7052~3

청년성서 하반기 만남의 잔치

일사: 9월 22일(주일)
장소: 교구청
문의: 청년부 055·249·7065

가정사목분과위원연수

일사: 9월 28일(토) 14:0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 (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연피정

주제: 메세지 551.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일사: 9월 16일(월) 10:00~16:00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전신자 및 회원 미사준비, 점심(김밥 제공)
문의: 회장님 010·9399·5454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사: 9월 17일(화) 13:30
장소: 교구청
문의: 담당자 010·9841·8191
미사와 작업발표가 있습니다.

창원지구 여성협의회 분기회

일사: 9월 17일(화) 14:00
장소: 사파동성당
문의: 055·249·7116

민족화해위원회

일사: 9월 18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055·261·8201

신앙대학 심화과정

일사: 9월 21일(토)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목국 055·249·7022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제출: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 신부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감: 9월 22일(주일) 17:00까지
방문, 우편, e-mail(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 **수도회**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일사: 9월 21일~22일, 9월 28일~29일,
10월 12일~13일, 10월 19일~20일,
10월 26일~27일, 11월 16일~17일,
11월 23일~24일 12월 14일~15일,
12월 21일~22일 (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피정비: 7만5천원
피정동반 및 강의: 유덕현 야고보 아바스,
최재용 세바스티아노 원장
신청: 010·2816·1986

장승포본당 성령묵상회

일사: 9월24일(월)~28일(토) 5일간
장소: 장승포성당
주제: 성령안의 생활을 위한 성령묵상회
강사: 이청준 신부 등 전국유명강사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사: 9월 28일~29일, 10월 19일~20일,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 **기 타**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사: 9월 20일(금)18:00~22일(주일)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두봉주교, 손동훈, 김현석, 조한건 신부 등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의: 010·7375·4600

 라파엘여행사 ◆ 10/4,11/4,11/2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89만원) ◆ 10/7, 11/7 아테리일주 9일 (279만원) ◆ 10/7 산티아고 13일 (395만원) ◆ 10/14,11/15 다낭성모발현지 5일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진영삼성안과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10월 26일 KOREAN AIR</td> <td>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td> <td>12일 449만원</td> </tr> <tr> <td>10월 28일 KOREAN AIR</td> <td>터키, 그리스 순례</td> <td>13일 399만원</td> </tr> <tr> <td>11월 11일 AEROMEXICO</td> <td>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td> <td>19일</td> </tr> </table> ▶ 출발 확정·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9월 27일~29일, 10월 3일~6일
 10월 9일~11일, 10월 14일~17일
 10월 22일~25일, 11월 1일~3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시: 10월 19일(토)11:00~10월 20(주일)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육적, 영적, 내적 치유를 원하는 모든 분들
 (접수는 선착순, 사전접수자만 참석가능)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비: 5만 원
 문의: 010·5490·5345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파티마 발현 102주년 기념행사

일시: 10월 10일(목)
 장소: 배론 성지
 차량비: 3만 원
 준비물: 미사준비, 각자 도시락, 생수, 모자, 돗자리
 문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 군대) 마산교구
 010·4848·7106



교구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세미나

일시: 9월 23일(월)부터 8주간
 (20:00~10:40)
 장소: 월남동성당
 강사: 문봉환 야고보 신부 등 전국 유명강사
 주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문의: 010·5072·5612
 찬미, 강의, 치유, 미사, 안수 있습니다.



2019년 제기 천주교 농부학교

일시: 10월 5일(토) 09:00~10월 6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농부이신 하느님'(요한 15,1)을 따르고 싶은 사람,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봉사자,
 가톨릭농민회원, 공소 회장단, 자연과 사람을 섬기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
 (고등학생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10만 원(1박4식 포함) / 송금계좌 농협 351-1092-0796-93 서정홍
 신청: 9월 23일(월)까지 (교육비를 입금 후, 전화번호와 성함을 011-9556-8239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만일 수강 인원이 50명이 안 될 때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서정홍 011·9556·8239
 주최: 천주교마산교구 농어촌복음화위원회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9월 16일(월) 19:00	월남동성당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강철현 신부(미카엘, 교구청 기획관리국장)	강철현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9월 16일(월) 19:00	반송성당	동행하는 예수님	김완식(요셉, 선교사)	정종규 신부(클라로)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9월 21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의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그 바람에게 잔을 건네며

김시탁 스테파노 • 시인

내게는 사회에서 만난 두 살 많은 형이 있다. 같은 문학세계에 발 디디고 만난 우리는 둘 다 시인이다. 그와 나는 자주 만나 운동을 한다. 주로 목 운동이다. 술잔을 털어 넣는 목 운동을 우리는 지칠 줄 모르고 즐겁게 한다. 서로 바빠서 못 볼 때면 마음이 절로 미끄러져 가서 술잔을 부딪친다. 그와 마시는 술은 달다. 우리는 문학의 텃밭에서 수확한 포도주를 빚어 맛나게 먹을 줄 아는 정다운 술친구다. 우리는 덩치가 커서 멧돼지도 맨손으로 때려 잡을 것 같지만 실상 지렁이도 못 잡는다. 그는 겁이 나서 못 잡고 나는 징그러워서 못 잡는다. 그는 산 낙지를 잡지는 못하지만 먹기는 잘하고 나는 잡지도 먹지도 못한다. 역시 징그러워서이다. 외형만 보면 둘 다 참나무 장작이나 잘 썰 것 같은 머슴같이 생겼다. 내가 그에 비해 좀 나은 구석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몇 개 더 있고 뱃살의 무게를 다는 저울추가 조금 작다는 정도다. 사람들 눈에는 둘 다 시인이라기보다는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 기사 혹은 그냥 힘 좀 쓰는 막일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인이고 자주 만난다. 그는 지병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꽤 긴 시간을 방황했다. 몇 년을 눈물겨운 간병 끝에 하늘나라로 보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한때 그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술병을 끼고 살았다. 혼자 마시는 술은 그에게 늘 눈물이었다. 그는 가슴에 묻은 아내를 쉬 떠나보내지 못해 따라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술을 마시면서 소리 없이 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커다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고여 오는 슬픔을 꼭꼭 쥐어짜 내는 일밖에 없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하느님 품 안으로 인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성당 한번 다녀보지 않겠느냐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를 설득했다. 처음 그는 마른풀 흔드는 바람처럼 웃었다. 그 바람에게 잔을 건네며 지속해서 그를 설득할 수 있었던 용기와 믿음은 진정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정녕 그분의 능력이었을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나는 심장으로 그가 마음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날 그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안민고개에 올라 주님의 기도를 바친단다. 그의 신심이 넉넉한 그의 뱃살처럼 차올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더 이상 가슴 중앙으로 강물 흐르고 대숲 흔드는 바람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술도 못 마시는데 우리 천주교는 술 마셔도 괜찮다 좋제?” 내가 어깨를 툭 치자 넉살 좋은 웃음을 건네는 그 형이 있어 내 삶의 근육질이 좀 더 탄력적이다.

